

평신도의 직분

사제직

사제직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정성을 하느님께 바치는 직무다.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이들은 성령의 도우로 축성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사제직에 참여한다. 사제직에는 일반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이 있다. **일반 사제직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봉헌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 사제직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미사성제를 거행하는데,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고 하느님께 축복을 받는 이 제사는 하느님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친다. (가톨릭 교리서 784 참조)

예언직

예언직은 하느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직무이다. 성부로부터 파견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신앙에 충실하고 그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구성원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가장 힘 있는 복음 선포로서 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생활로써 타인의 모범이 될 때 세상에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아울러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는 진리의 선포에 있어 가르침이 없음을 고백하는데 이를 교회의 무류성이라 한다. 즉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일치할 때 그 진리는 틀릴 수 없다. (가톨릭 교리서 785 참조)

왕직 (봉사직)

왕직은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참된 임금이며 주권자이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끄심으로써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왕이며 우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해 모든 삶의 종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구원을 위한 봉사이기에 왕직은 곧 봉사직이다.** 교회는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발견하여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는 소명에 맞게 살으로써 왕의 품위를 실현한다. (가톨릭 교리서 786 참조)